

2024. 10. 07.[월]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29
김현국 국장 010-2581-2487/ 이승환 선임비서관(이용우 의원실)010-8784-1878

고용안정 입법화, 임금삭감안 철회 등 고공농성 해결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촉구 기자회견

2024년 10월 7일 (월) 13:20, 국회 소통관

윤석열 정부와 건설업계는 건설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임금삭감안 철회와 고용 안정을 위한 입법으로

지난 2일,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일당 2만 원 삭감안 철회, 건설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입법 등을 요구하며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졌던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적 문제가 쌓이다 터져버린 것이다.

건설노동자 고용 안정에 대한 문제는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 세월 오랜 기간 동안 건설노동자들은 일용직 비정규직으로 언제나 다음 일자리를 걱정하며 살아왔다. 그나마 노동조합을 통해 건설업계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건설현장 고용 시스템에 변화를 줘 일정부분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조합의 노력과 변화는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탄압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동자 고용 안정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건설업계와 한 몸이 돼 건설현장의 고용 시스템을 과거의 일용직 노가다 시절로 되돌렸다.

건설 산업의 위기 속에 정부와 업계는 건설노동자를 소모품마냥 쓰고 버리는 취급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건설현장이 대폭 감소해 일자리를 찾기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내국인 건설노동자의 실업률은 증가하는데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없이, 이주노동자의 고용비율은 늘리며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하려하는 등 건설사의 이윤만을 늘리려 했다. 거기에 더해 건설업계는 지난해 동결했던 건설노동자의 일당마저 삭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일자리도 없고, 임금마저 깎이는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건설현장 고령화와 인력 감소에 대한 문제는 해마다 건설 산업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누구도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 청년건설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과 임금 문제만 해결된다면 건설현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정부와 업계는 불안정한 건설현장 고용 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고만 있다. 이대로 건설현장을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나라로 떨어지도록 두고만 있을 것인가.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정당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설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을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나서는 한편, 올해 안에 건설노동자 고용개선과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입법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건설업계가 건설 산업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지금 당장 건설노동자 고용안정과 임금보장 등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 건설노동자가 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건설 산업이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참고] 기자회견 기획안

□ 취지

- 현재 여의2교 사거리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삭감2만원 반대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
- 윤석열 정부에 의한 건설노조 탄압과 건설 불경기를 이유로 한 건설사들의 임금 후려치기에 건설노동자들은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
- 이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건설노동자의 고용을 개선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전문건설사 사용자단체에 단체교섭 촉구하며, 정부에 건설노동자 고용개선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개요

- 일시 : 2024. 10. 7.(월) 13:2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 진행순서

(사회자 : 이용우 의원)

시간	내용	비고
13:20~13:23	3 ‘ - 참석자 소개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회자
13:23~13:38	15 ‘ - 발언(6명) ·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위원장 ·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 진보당 정혜경 의원	-
13:38~13:40	2 ‘ 마무리	사회자